

남북사회문화협력의 확대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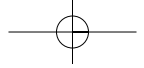
제1절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제2절 주요 남북공동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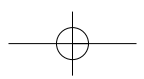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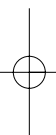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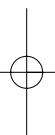
제3절 분야별 교류

제4절 계층별·지방자치단체 교류

사회문화교류는 그 분야가 다양하고 남북간 주민의 참여 폭이 넓다는 점에서 남북 상호 간의 공감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는 민간 및 당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 주도의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관계 발전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MINISTRY OF UNIFICATION



III

남북사회문화협력의 확대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과의 접촉과 왕래를 통해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과 같은 경제분야와 함께 교류협력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회문화분야 교류이다.

사회문화교류는 교류 분야가 다양하고 남북간 주민의 참여 폭이 넓다는 점에서 상호 공감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는 민간 및 당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 주도의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관계 발전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사회문화교류는 양적·질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전년도인 2005년도는 왕래인원과 협력사업이 대폭 증가한 해였다. 2006년은 북한 수해피해 및 북핵실험으로 인해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8.15남북 공동행사와 아리랑축전 등 대규모 왕래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체적인 교류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다소 소강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으로써, 민간 사회문화교류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에는 4,324명(2005년도 10,777명)의 남한주민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293명(2005년도 675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특히, 북관대첩비 환수 및 북한으로의 반환,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위한 남북공동 현지조사,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 등은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지원, 남북당국의 지원합의가 상호견인 역할을 한 좋은 사례로 앞으로의 민관 협력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1절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은 종교, 문화예술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이 상호 역할분담을 논의하고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이다.

사회문화협력사업은 참여의 폭이 넓기 때문에 남북간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는데에 기여하고 상대방인 북한에게도 개방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종국적으로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회문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민간교류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상황에서도 화해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완충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규모면에서도 크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류분야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2005년의 협력사업 승인건수는 47건으로, 이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년간 협력사업 승인건수 47건과 맞먹는 수치이다. 2006년에는 총 26건의 사회문화 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남북간 체육분야 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북 강원도 주관으로 춘천에서 아이스하키 친선경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남북간 동계 스포츠 협력이 성사되었다.

남북 문화재관련 협력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고분군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평양 안학궁터 남북공동발굴조사, 개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개성역사유적 남북공동발굴조사 협력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북한 소재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북한 문화재 특별전」이 진행되는 등 남북간 문화재 보존을 위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였다.

2006년은 남북은 물론 지구촌이 월드컵 열기로 가득했던 해였다. 남북한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에 관심이 높았으나, 북한 축구대표팀이 본선진출에 실패해 아쉬움이 있었다. 남북동반 본선진출은 무산되었으나, 우리는 북한에게 월드컵 경기 위성중계를 실시하여 월드컵을 통해 남북이 보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2005년 이후 남북 당국이 지원하기로 합의한 협력사업의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민관협력의 남북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북관대첩비를 일본으로부터 환수받아 2006년 3월 1일 개성을 통해 북한에 반환하였다. 안중근 의사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송환하기로 합의한 사업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남북은 중국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05년도 합의 이후,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사전편찬 공정은 20%가량 진행되었다.

2006년 남북사회문화협력은 6.15남북공동행사 개최,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별 협력과 청년학생·노동자 등 계층별 협력,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협력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2006년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현황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민족화해협의회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 개최	'06.2.22 ('06.2.22)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임종석)	북한 저작권사무국, 민화협	북측 저작권 대리 · 중개사업	'06.3.14 ('06.3.14)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 (대표자 구대열)	북한 조선의학학회, 민화협	북한 보건관련 학술회의 개최	'06.3.15 ('06.3.15)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남측위원회(위원장 강만길)	북한 민화협, 문화보존지도국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구려고분군 실태조사	'06.4.3 ('06.4.3)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김정배)	북한 민화협, 문화보존지도국	고구려 유적 남북공동조사 - 평양 안학궁터 남북공동 발굴조사	'06.4.10 ('06.4.10)
▲(사)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 (대표 임종석)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금강산가극단』	6.15 공동선언 6주년기념 금강산가극단 특별공연	'06.4.14 ('06.4.14)
▲(사)남북경제문화 협력재단 (대표 임종석)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금강산가극단』	금강산가극단 앨범 '비약' 제작	'06.4.14 ('06.4.14)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박재규)	북한 민화협, 평양 윤이상음악연구소 등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공연	'06.4.14 ('06.4.14)
▲월간『민족21』 (대표 안영민)	북한 통일신보사	북한 통일신보사와의 기사교류 및 방북취재	'06.4.18 ('06.4.18)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및 공동단행본 발간	('06.5.9)
▲민족화해협력범국민 협의회 (대표 정세현)	북한 민화협	2006 남북공동나무심기 행사	'06.4.19 ('06.4.19)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위원장 강만길)	북한 민화협	북한 문화재 특별전	'06.4.25 ('06.4.25)
▲광복회 (대표 김국주)	북한 당국 (단장 전중수)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	'06.5.16 ('06.5.16)
▲우리 겨레 하나 되기 운동본부 (대표 최병모)	북한 민화협	남북교육협력사업 (연구기자재 지원 및 학술교류)	'06.5.29 ('06.5.29)

제3장 남북사회문화협력의 확대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한국권투위원회 (대표 박상권)	조선프로권투협회 (서기장 엄정환)	제4차 남북프로권투대회 (금강산 온정리 개최)	'05.3.22 (06.6.1)
(주)뉴보텍 (대표 한승희)	북한 조선영화수출입사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06.6.7
▲민족화해협력범 국민협의회 (대표 정세현)	6.15북측위원회	2006 『6.15민족통일대축전』행사 (2006.6.14~6.17)	'06.6.7 (06.6.7)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소장 유영대)	북한 대외전람총국, 출판물교류협회	북한 전통문화 기록화 사업	'06.6.9 (06.6.9)
▲방송위원회 (위원장 노성대)	북한 조선중앙방송 위원회	2006 독일월드컵경기 대북 위성중계 지원사업	'06.6.12 (06.6.12)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북한 민화협	개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개성역사유적 남북공동발굴조사 - 개성역사유적 보수관리를 위한 물자지원 추가	'06.6.20 (06.6.20) (06.7.6)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을 위한 남측조 직위원회 (대표자 고은태)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을 위한 북측조 직위원회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식 - 06.7.29~30, 금강산 -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식, 문학의 밤 행사, 홍보물 및 자료집 발간 등	'06.7.27 (06.7.27)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 (06년~09년)	'06.8.9 (06.8.9)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북한 민족화해 협의회	재북 임시정부요인 묘소 성묘사업	'06.9.25 (06.9.25)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박재규)	윤이상음악연구소 대외사업처	평양 윤이상음악제 참가 및 협연	'06.10.9 (06.10.9)
▲(사)남북체육교류협회	4.25체육단	태국 차야퐁컵 국제친선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참가(06.10.22~10.29)	'06.10.18 (06.10.18)
▲(사)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 주종환)	개성지역특구개발 지도총국	『제2차 개성지역 청소년평화통일 숲 가꾸기』 ①2006.11.18~12.9(약800여명), 은행나 무 1만그루 ②2007.3.20~6.20(약4,000여명), 미루 나무 50만그루	'06.11.24 (06.11.24)
▲(사)한민족어깨동무 (이사장 조영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북한 처소교회 지원을 위한 밤나무숲 조성 사업(06.12~11.12)	'06.12.4 (06.12.4)

주) ▲는「협력사업」승인까지 받은 단체

제2절 주요 남북공동행사

1. 6.15 공동행사

6.15 남북공동행사는 200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05년 남·북·해외 3자로 구성된 협의체 결성 이후 2006년에는 6.15공동행사 추진주체를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공동위원회)체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6년 6.15공동행사인 6.15공동선언 발표 6주년 기념 「6.15민족통일대축전」은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남한 지역에서 개최된 공동행사는 대체로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2004년 6.15공동행사는 이례적으로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2004년도 6.15공동행사「우리민족대회」가 개최되었던 인천이 수도권이었음을 감안한다면, 2006년 광주개최는 6.15공동행사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공동행사의 지방확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된다.

「6.15민족통일대축전」에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당국과 남·북·해외의 민간이 함께 참여하였다. 북한에서는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대표단 128명과 김기남 단장을 비롯한 당국대표단 19명이 참가했으며, 우리측에서는 백낙청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대표단 469명과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당국대표단 13명이 참가했다. 그리고 해외측위원회에서는 문동환·곽동의 공동위원장 등 145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본 행사는 개막식, 축하공연, 민족통일대회, 부문별 상봉, 남북예술공연, 체육오락경기, 폐막식, 목포 유달산 및 광주학생운동기념탑 참관 순으로 진행되었다. 6.15공동위원회는 행사 기간중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축전에서 노동자·농민·청년학생·여성·교육 등 각 사회 부문별로 대규모 상봉행사를 개최하여 공동행사 대중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6.15민족통일대축전



6.15민족통일대축전 축하공연

또한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가하여 축하연설을 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높여주었다. 행사기간중 남북 당국대표단은 5.18국립묘지 참배, 개 · 폐막식, 시내참관 등에 참가하였고 별도의 당국기념행사 및 대표단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당국기념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당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비공식 좌담회라는 새로운 방식의 당국간 접촉을 통해 쌍방 당국이 허심탄회한 자세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6년 「6.15민족통일대축전」은 열차시험운행 지연이라는 남북간 상황 악화 속에서도 대규모 민간·당국 공동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됨으로써 남북공동행사의 안정화·정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점, 당국차원에서 당국기념행사 및 좌담회 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의 계기를 마련한 점을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6.15민족통일대축전」 기간에 북한의 민간대표단 대표인 안경호 단장이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여 행사기간중 비난여론이 있었으며, 안경호 단장은 행사를 마치고 광주를 출발할 때 발표한 출발성명에서 남한의 부정적 여론을 비난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환담시간을 통해 북한 안경호 민간대표단장에게 북한의 내정간섭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의 민간 및 당국대표단은 북한 대표단과의 접촉 및 대변인 논평, 대언론 설명을 통해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해명을 요청하였다. 북한 대표단의 광주 출발성명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공동행사의 본래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2. 8.15 공동행사 및 아리랑 공연 방북 취소

2006년은 아리랑공연 참관을 위한 대규모 방북이 성사되지 못했다. 「6.15공동위원회 북측위원회」는 7월 30일 팩스를 통해 수해피해로 인해 아리랑공연을 계획대로 개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해옴에 따라 아리랑공연은 취소되었다. 아리랑공연 대규모 참관방북 취소에 이어 곧바로 「6.15공동위원회 북측위원회」는 수해피해로 8.15공동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6.15공동행사와 함께 대규모 남북 상호 왕래행사의 양 축을 이뤄왔던 8.15공동행사가 무산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제3절 분야별 교류

1. 체육교류

2006년 남북 체육교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의 영향으로 2005년에 비해 직접적 교류가 다소 저조하였으나,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교류협력은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논의를 비롯하여 국제대회에서의 남북 동시입장, 태권도 통합논의, 권투교류 정례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서울총회 북한대표단 참가 등이 성사되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2005년 12월 북경 제1차 회담에 이어 2006년에 두 차례나 개최됨으로써 단일팀 구성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6년 6월 개성에서 열린 제2차 남북체육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제1차 체육회담에서 이견을 보였던 선수단명칭, 단기, 단가 등에 합의하는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선수단 선발방식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여 차기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3차 체육회담은 2006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제15회 아시안게임 기간동안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회담에서는 핵심쟁점인 선수선발과 관련하여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향후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제대회에서의 개폐회식 남북 공동입장은 2006년 2월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12월 카타르 도하아시안게임 등 두 차례나 성사되었다. 특히 도하아시안게임에서의 남북공동입장은 북한의 핵실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사됨으로써

2002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8차례 진행되어온 남북 공동입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제15회 도하아시안게임 개막식 남북 동시입장

제3장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확대

남북 태권도 통합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 해였다. 2006년 2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F : World Taekwondo Federation)과 국제태권도연맹(ITF :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총재간 태권도 통합관련 의견교환이 있었다. 2005년 두 차례의 실무회담 이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태권도 통합을 위한 실무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11월 제4차 실무회담에서는 ‘태권도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이던 양 기구간의 통합논의에 탄력을 부여하였다.

2004년 10월 중국 심양대회부터 시작된 남북 권투교류협력은 한국권투위원회의 주관으로 2006년 6월초 금강산에서 제4차 프로권투대회가 개최됨으로써 남북간 권투교류가 정례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남북한 권투 발전은 물론 북한의 프로 스포츠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2006년 3월 제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총회에 손광호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북한대표단이 방문함으로써 남북간 스포츠 교류 활성화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6년 피스퀀컵 국제여자축구대회의 북한 여자대표팀의 참가와 태국 청소년 국제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 등 예정된 체육교류사업들이 북한의 핵실험 등 주변정세로 갑자기 취소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2. 종교교류

2006년의 남북 종교교류는 하반기의 어려운 정세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인적·물적교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조계종에서는 2004년부터 추진해온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06년 11월 19일에는 350여명의 조계종 스님, 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 2006년에 건립된 극락전 등 9개동 건물에 대한 「편액제막」과 낙성식을 남북공동행사로 진행하였다. 신계사 복원사업은 2007년까지 대웅전 등 12개동 건물을 복원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2006년 9월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는 금강산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공동개최함으로써 남북간 불교교류가 정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 3월 31일 금강산에서 열린 겨레얼살리기 남북공동행사는 남북한이 민족종교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예장 통합 남선교회 회원으로 구성된 (사)기쁜소식은 낙후된 평양 봉수교회를 전면 재건축하기 위해 2005년 9월 공사를 시작한 이래 2006년에도 활발한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6년 11월 29일 봉수교회 상량예배를 위해

91명의 대규모 종교인이 방북하여 남북 합동예배를 드림으로써 남북 종교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07년 8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존 250명에서 1,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상 3층, 연 건평 600평의 교회로 재탄생된다.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 현장

감리교 서부연회는 2001년 이래 추진해온 평양신학원 운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기적인 방북을 통해 남북기독교인의 인적교류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불교에서는 재단법인 ‘은혜심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북측에 빵, 밀가루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모범적으로 전개하였다. 천주교에서도 민족화해위원회를 통해 국수공장, 어린이 영양제 공급 등 대북지원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종단차원의 교류 확대에 노력하였다.

3. 문화예술교류

2006년 남북간 문화예술교류는 전시, 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음반제작 등 다양한 장르에서 진행되었다. 4월 29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윤이상음악회 행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선생(1917~95)을 기리는 남북 합동 음악회로서 윤이상평화재단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행사를 주최하였다.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함께 협연한 윤이상 음악회에는 우리측 이종석 통일부장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용태 민예총 회장 등 2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서 이종혁 아·태 부위원장, 이일남 평양윤이상음악연구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윤이상 선생 탄생 89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10월 중순 개최된 「2006 제25차 평양 윤이상음악회」에 윤이상평화재단측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하였다.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모습

북한이 해외예술단으로 자랑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금강산가극단」은 「6.15 공동선언 6주년기념 금강산가극단 특별공연」을 6월초 수원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였으며, 민요와 가곡 8곡, 민족기악곡 4곡이 수록된 금강산가극단 50주년 앨범 「비약」을 제작하였다.

북관대첩비의 역사적인 반환과 함께 문화재에 대한 남북간 교류사업 또한 활발히 추진되었다. 2006년 3월 1일 「한일불교복지협회」가 주관이 되어 2005년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은 북관대첩비를 북한에 인도·인수하는 행사가 남북 문화재 당국자 및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북한은 반환받



실제 북관대첩비 모습

은 북관대첩비를 3월 원소 재지인 함북 길주에 복원하고 이를 우리측 관계자에게 통보하였다. 북관대첩비 반환은 남북 당국 및 민간이 합심하여 문화재를 반환한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북한문화재 특별전시전」을 개최하여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약 2개월 동안 북한의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국보급 문화재 90여 점을 전시하여 문화재를

통해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주었다.

또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 속에서도 10월말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작가들이 금강산에서 만나 「6.15 민족문학인협회」를 결성하였다. 문학인 협회에는 우리측 문학평론가인 염무웅 615민족문학인협회 남측 협회장 등 62명과 북한 김덕철 작가동맹부위원장 등 5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남북한 문인들의 결성식은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식(금강산)

한편 2006년에는 서울국제영화페스티벌 등 우리측의 애니메이션 영상사업 관련 관계자들과 평양소재 국영스튜디오인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등 북한 관계자들간에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제무대에서 인정된 북한의 애니메이션 영상 기술력과 우리의 자본력이 합쳐지면 앞으로 사업의 전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